

드론축구... 러시아월드컵 선전기원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유소년용 드론축구 홍보행사' 열려 무대에서 드론축구 저변확대, 월드컵출정식 분위기 고조

전주시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유소년용 드론축구를 선보이면서 러시아월드컵을 향해 출정하는 태극전사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시는 지난 1일 '대한민국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과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이 열린 전주월드컵경기장(동문 E구역)에서 드론축구 저변확대를 위해 유소년용 드론축구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사)캠틱종합기술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

서는 성인용에 비해 크기를 1/4로 축소된 유소년용 드론축구경기장이 제작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성인용보다 저렴하고 소형화된 다양한 드론축구 용품들을 전시한 홍보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평가전 종료 후에 열리는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에서는 KT 드론레이싱팀의 김민찬 선수가 드론을 이용한 이벤트를 펼쳤다. 드론레이싱 세계 대회 우승 경력에 있는 김 선수는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공중에 띄우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출정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와 관련, 유소년용 드론축구공은 현재 50~60만원 대의 가격에 지름 40cm, 무게 1kg인 드론축구공을 10여만 원 대의 가격으로 낮추고, 지름은 절반인 20cm,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한 해 기존보다 10배 가벼운 100g 정도의 규격으로 소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비행시간도 기존의 3분에서 6분으로 2배 이상 늘림으로써 가격대비 성능을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별 경기장 구입과 교실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크기가 성인용의 1/4로 축소된 저가형 드론축구 경기장을 개발하고 유소년(14세 미만) 드론축구 리그를 출범시

키는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폭넓은 저변확대가 가능해지고 있어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화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러시아 월드컵 무대를 향해 떠나는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유소년용 드론축구를 통해 응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각종 드론축구 프로그램은 물론 드론 조종 및 정비, 체험형 이벤트 등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한편, 유소년 드론축구 리그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ICT 융복합 레저스포츠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자 자활기업인 (유)이크린월드가 새로운 사업장 입주식을 열었다.

이크린월드, 제2의 도약 꿈꾼다

삼천동에 새동지 마련... 축하 속 힘찬 새출발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자 자활기업인 (유)이크린월드가 새로운 사업장 입주식을 갖고 제2의 도약에 나섰다.

(유)이크린월드는 4일 삼천동 삼천시립도서관 맞은편에 마련된 새로운 사업장에서 전북지역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입주식을 가졌다. (유)이크린월드는 지난 2001년 덕진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청소사업단으로 출발해 2008년 10월 자활기업을 설립, 청소용역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활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크린월드 기업에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사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는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취업·창업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자활기업과 신규 창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향후 매년 자활기업을 활용한 자활기업 육성지원에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이크린월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취약계층의 탈 빈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늦깎이의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인문학

금암도서관, 4일부터 10월까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비문해학습자 눈높이 맞춘 인문자원 연계 참여 통해 활성화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은 4일 오전 11시 전주주부평생학교에서 비문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1차 사전모임을 진행했다.

금암도서관의 '늦깎이의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인문학'은 학교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비문해 학습자에게 여러 영역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강생들은 '삶의 발견이 있

는 창작의 즐거움과 문학 탐구'의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첫 번째 강연자인 김용택 심심강 시인의 작품에 대한 소개, 두 번째 강연자 전주대학교 교수가 강연한 소설 '탁류'의 저자 채만식에 대한 생애와 작품 속에서 스스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을 가졌다.

금암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지역인사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은 4일 오전 11시 전주주부평생학교에서 비문해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1차 사전모임을 진행했다.

맞춤 연중 진행한다. 한 사항은 금암도서관(063-281-64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돼지고기 음식물 제공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C단체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4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선거관에 따르면 A씨는 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 2016년 5월 7일 선거구안에 있는 C단체의 회장 B씨의 요청에 응해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인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선거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 6명에게 E시장선거 후보자 A씨, F시의원선거 후보자 B씨 및 C씨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D씨를 4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법원청정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선거관에 따르면 D씨는 선거구민 등 6명을 저녁식사 모임에 초대 한 후 E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F시의원선거 후보자 B씨 및 C씨를 소개시키고 지지를 부탁하였으며 21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북선거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룸메이트 살해한 베트남 유학생 항소심도 징역 15년

방세 문제로 다투다 룸메이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베트남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13분께 전북 익산시내 한 원룸에서 함께 사는 베트남 유학생 B(당시 2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열 원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A씨는 흉기를 든 채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방세 문제로 다투다 황김에 집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의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기동취재반

무주군 공고 제2018-620호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입안된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43-1번지 일원의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구역명: 방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변경: 산업개발진흥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면적: 30,533㎡ → 30,629㎡ (증 96㎡)
 - 구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특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 면적: 30,533㎡ → 30,629㎡ (증 96㎡)
 -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30,629㎡
 -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유
 - 전통민간가공설비를 위해 기 결정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를 급회 전통민간가공설비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야영장 조성을 통하여 마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민 공람장소 및 기간
 - 공람장소: 무주군청 건설교통과, 산업경제과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 완료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도면 및 조사: 실용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건설교통과 063)320-2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5일 무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